학교로 뻗치는 조폭의 검은 손

운동선수 출신 중·고교 중퇴생들 '싸움 짱' 10대 가입시켜 세력 키워

10대 조직원들 상습폭행 단체사진 찍어 세과시 광주동부경찰, 21명 검거

일진 등 불량청소년 학교·경찰 강력 대처해야

운동선수 출신 중·고교 중퇴생과 인터넷 카페에서 소위 '싸움 짱'으로 불리는 10대 청소년들을 끌어들여 세력을 키워온 광주지역 폭력조직 신양OB파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조직폭력배들과 이른바 '학교 일진'들의 연결 고리 및 학교 폭력과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광주동부경찰은 지난 30일 10대 조직원들을 자신이 몸 담은 폭력조직에 가입시킨 뒤 상습적으로 폭행을 휘두른 혐의(범죄단체구성·활동 등)로 신양OB파 행동대원 이모(32)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조직에 가입한 뒤 자신을 폭력 조직원이라며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들에게 위세를 과시하며 폭행한 혐의로 홍모(19)군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1일 새벽 5시께 광주시 동구 충장로 A호프집 앞길에서 김모(28)씨 등 2명을 야구방망이로 보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직원 1명이 김씨 등에게 폭행당했다는 연락을 받은 뒤 둔기를 들고 찾아가 집단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인터넷 사이트 '맞짱' 카페에서 소위 '싸움 짱'으로 불리는 10대와 야구·씨름선수 출신 중·고교 중퇴생들을 조직원으로 끌어들여 세를 키우려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씨는 기존 조직원과 새로 가입한 10대 조직원간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단합대회를 열고 단체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게재하기도 했다. 이씨는 또 조직원이 탈퇴하려 할 경우 신규 조직원들을 동원해 이탈하지 못하도록 폭력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부 중·고교생들이 폭력조직원으로 가입해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고 다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 '학교 일진' 및 학교 폭력과의 관련성 여부를 캐고 있다. 경찰은 또 폭력조직에 가입한 10대 학생들이 교내에서 돈을 빼앗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범죄행위를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참 〈8895〉 김종두

'스티커' 4만3610건 '과태료' 17억4400만원

광주경찰, 올해 주·정차 단속 강화

'4만3610건'. 광주 경찰이 올해 초부터 9월 말까지 광주 전역에서 끊은 주·정차 단속 건수다. 적발된 차량에 4만원 짜리 범칙금이 부과된 것으로 계산할 경우 올해 광주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때문에 낸 돈만 17억 4400만원에 이른다는 얘기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적발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4만3610건. 경찰이 직접 단속에 나서 운전자에게 범칙금 스티커를 끊은 게 8688건. 지난해 단속 건수(180건)의 50배에 육박한다. 또 운전자를 찾을 수 없어 현장 사진을 찍은 뒤 구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한 게 무려 1만6082건이다.

경찰은 첨단 LC타워 일대, 수완국민은행 사거리 등 광산 지역에서만 무려 5416건의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고 서구에서도 운천사거리·광천터미널, 신세계백화점, 풍암금호 사거리 등에 세워진 3706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을 찍어 구청에 처분을 의뢰했다.

여기에 경찰이 구청과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서 적발한 1만8840건을 합해야 한다. 출·퇴근 시간과 주요 집회·행사 개최 때는 교통 정리에 투입되기 때문에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데도, 이 정도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그만큼 불법 주·정차가 만연해 있다는 얘기다. 차량 통행이 많은 대로변, 시민들이 참여한 각 경찰서 선진주차문화협의회 등에서 제기된 장소 등 사실상 경찰 단골 단속 지역이 정해져 있는데도, 적발 차량이 줄지 않는다는 것도 눈여겨 봐야 한다.

동구에서는 마사회 인근과 충장로 1가 입구가 주요 단속 장소였다. 서구는 운천사거리·무각사 삼거리·신세계백화점 인근 앞길·풍금사거리 주차 차량이 1차 표적이 됐다. 남구는 쌍용아파트 사거리와 빅스포 앞길. 북구는 두암타운 사거리·전대후문·경신여고사거리 등이 단골 단속 장소였다.

하나 더. 범칙금이 8만원에 달하는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적발된 건수도 1095건에 달했다.

문제는 광주 경찰이 무너지고 있는 기초 질서 확립을 내걸고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단속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이 끊이질 않는다는 점이다. 한 번 훑고 지나가면 다시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는가 하면, 주·정차 단속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구청이 퇴근 이후에는 사실상 단속을 하지 않으면서 시민 체감도도 미흡하다.

경찰의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 외에 광주시가 시민들의 교통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이유다.

/김지을기자 dok2000@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도심 공사현장에 불 지난 30일 광주시 동구 광산동 한 주차장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경찰, 112 허위신고자에 손배소

경찰이 112에 허위 신고를 한 시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순천경찰은 지난 30일 강도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김모(38)씨를 입건하는 한편 추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 50분께 순천시 대룡동 골재야적장에서 전남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신원 불상의 20~30대 남성 3명에게 흉기로 위협당하고 현금 20만원과 금목걸이 등 약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겼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 허위신고로 100명의 경찰력이 4일 동안 추가 근무에 들어간 점 등을 산정,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경찰도 올 들어 1~8월까지 하루 약 10건, 2440건의 장난 전화로 업무를 방해한 신고자에 대한 수사를 벌여 혐의를 확인한 뒤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블랙야크' 회장 항공사 용역직원에 신문지 폭행

"물의 일으켜 죄송" 사과

유명 의류업체인 블랙야크 강태선(64) 회장이 항공기 탑승을 못하게 되자 항공사 용역 직원에게 신문지를 집어 던지며 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아시아나항공과 경찰에 따르면 강 회장은 지난 27일 오후 김포공항 국내선 탑승구에서 탑승 시각에 늦어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되자 항공사 용역직원인 30대 남성에게 욕설하고 신문지로 때렸다.

강 회장 일행은 여수에서 열리는 슈퍼모델대회에 협찬사 자격으로 참석하려고 당일 오후 3시 10분 김포공항 발 여수행 비행기를 타려 했다. 하지만 출발 1분 전에야 탑승구에 도착했고 항공사 직원들이 탑승이 어렵다며 막아서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논란과 관련해 강 회장은 지난 30일 별도의 공식 사과 성명서를 내고 "당시 현장에서 사과를 했고 약 1시간 후 재차 당사자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다"면서 "어찌 되었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험설계사 부부 4억대 사기

광주 북부경찰은 지난 30일 보험설계사인 아내와 공모해 허위 진단을 받아 4억6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54)씨 부부를 불구속입건했다. 김씨 부부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한 달간 생명보험 등 16개 상품에 가입한 뒤 2008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남편 김씨의 병명을 바꿔가며 광주, 전남, 전북의 요양병원 등에 허위로 입원해 4억63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부당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

용돈 궁해 엄마 패물 품친 20대

쌍나팔

○…용돈마련을 위해 어머니의 패물을 훔쳐 팔려 한 철없는 20대 아들이 경찰서행.

○…지난 30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류모(23)씨는 지난 8월15일 오후2시께 여수시 학동 자신의 자택 안방 서랍에서 어머니 장모(여·51)씨의 금반지 등 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금은방에 판매하려 했다는 것.

○…류씨는 친구를 통해 훔친 귀금속을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금은방에 넘기려 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어머니는 이때까지 피해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후문.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굿모닝 메디컬 타운
선착순 임대, 분양중

문흥, 일곡, 각화, 용봉지구의
전과목 메디컬타운

지상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	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
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	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항문외과

Good Morning Medical Town 굿모닝메디컬타운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 · 분양 문의 : 062)252-0099

2013년 9월 16일 CGV 오픈
2013년 10월 15일
락볼링장 & 락카페 오픈예정
2013년 10월 25일
굿모닝 골프연습장 오픈예정

파격적인 임대가 & 분양가

본관 1층	유니클로등 브랜드 의류매장 분양중	본관 2층	브랜드피자 분양중
별관 1층	브랜드커피숍 및 미용실 분양중	별관 2층	한정식 분양중
별관 3층	일식 분양중	별관 4층	패밀리레스토랑 분양중
별관 지하	직원식당 겸 일반식당 분양중		

Good Morning Sporenter Town 굿모닝스포렌터타운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